언택트 시대, 사찰 기부도 '키오스크'로

조계사, 전국 1호 '키오스크 보시함' 개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지현)에 두어 번의 터치만으로 단 5초 만에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키오스크 보시함'이 개설됐다. 키오스크(Kiosk)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결제방식이다.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도와 불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기부방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조계사는 최근 조계사교육문화센터 1층에 비대면 보시가 가능한 '키오스크 보시함'을 설치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종교활동 지원에 나섰다. 설치업체인 KG이니시스에 따르면 기부와 보시 등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례는 조계사가 최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문화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도와 불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부와 보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키오스크 보시함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보시나 기부를 원하는 불자가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원하는 항목의 보시금을 선택하면 끝이다. 항목은 승보공양, 성역화불사, 부처님오신날 시주금, 선원대중공양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각 항목을 선택하면 기부금의 사용처와 의미가 소개되며, 1천원부터 5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제 후엔 즉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법당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불전함 및 종무소 역할을 그대로 담았을 뿐 아니라, 현금 납부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도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효율성을 자랑한다.

때문에 조계사 측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키오스크 보시함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자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실현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키오스크 보시함'은 주지 지현스님의 결단에서 탄생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계가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말 비대면 기부금 납입이 가능한 사이트를 도입한 것 역시 같은 일환이다.



조계사 교육문화센터 1층에 설치된 '키오스크 보시함'을 이용하는 스님과 신도들. 사진제공=조계사

'언택트 종교활동' 획기적 시도
조계사교육문화센터 1층 설치
신도 · 불자 편의증대 호응 커
위축된 기부 · 신행전환점 기대

불교 정서상 "사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하는 우려도 컸다. 그러나 스님은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불교가 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하루 늦으면 나중에는 10년이 뒤쳐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와 달리 불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설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보시함이 설치된 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신도들 사이에서 "빠르고 간편해서 좋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주하고 기부할 수 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 측은 이 같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수렴해 향후 대웅전 앞에도 '키오스크 보시함'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도와 불자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 향후 '키오스크 보시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현 스님은 "불교계가 그동안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만큼, '키오스크 보시함'이 코로나 이후 위축된 종교활동 및 기부문화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소 과감한 시도이긴 하지만, 조계사의 사례와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다른 사찰에서도 '키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교단체도 온라인 소통 증대

포교사단 등 원격 의결
(사)자비명상 이취임식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새해를 맞은 불교 각 단체들의 비대면 소통이 늘고 있다.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 총동문회는 1월 5일 서대문 현성정사에서 제5대 자비명상 총동문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5대 총동문회장으로 공주 청룡사 주지 관우 스님이 당선됐다.

관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여 자비명상으로 행복의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시키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도 1월 19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2021년 제1차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 줌을 통해 열린 이번 화상 회의에서는 △2020년 결산안 승인 △포교사단 정관 개정안 심의 △포교사단 출범식/대의원 총회 실시 △팔재계 수계법회 및 정기연수 실시 △제26회 포교사 선발고시-1차합격자 합격자 연수 등이 의결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월 12일 포교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매뉴얼을 전국 대학 동아리에 배포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한 소통 증대 방침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자비실천 燈' 달기 캠페인 전개

전액을 코로나 장학금 사용
2월 26일까지… 상시 예정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자비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국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건학이념인 자비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한 '자비나눔 ·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을 연다"고 1월 19일 밝혔다.

이날 동국대는 대학 본관 로비에서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정각원장 묘주 스님, 강성우 학부 총학생회장, 선경화 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재완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나눔 ·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동국대는 대학 본관을 비롯해 12곳의 학내 건물 로비에 총 24그루의 희망나무를 심고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등 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1차적으로 2월 26일까지 40일 간 진행된다.

동참금은 희망나눔 1그루당 20만원, 등 1개당 1만원 이상이며, 모연금 전액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는 2월 26일까지 '자비나눔 ·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을 대학 본관 및 건물 로비 12곳에 진행한다. 사진은 윤성이 총장과 정각원장 묘주 스님, 강성우 학부 총학생회장, 선경화 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재완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캠페인 선포식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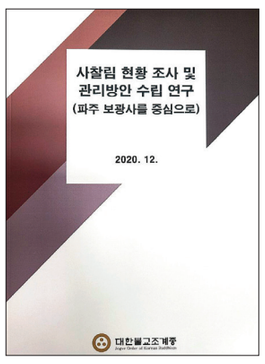
조계종, 사찰림 활용방안 모색 나섰다

환경위, 첫 연구보고서 발간
'파주 보광사' 시범지로 선정
현황 및 관리방안 수립 시도

사찰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주 보광사'를 중심으로 한 시범연구지만, 이를 통해 향후 사찰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의 운영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환경위원회(사회부장 성공 · 환경위원장 무관)는 최근 파주 보광사를 시범지로 선정, 현황과 관리방안을 연구해 '사찰림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보광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충현 교수)과의 협업을 토대로 작성됐다.

환경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사찰림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사찰림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림복지 차원에서 대국민 편의를 제공할 경우 사찰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선 경기도 파주 보광사를 시범지로 선정하고 사찰림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분석해 운영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찰림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찰림의 기능'을 종교교육적, 생태문화적, 경제적, 관광휴양으로 구분했다.

조사대상인 보광사 사찰림의 경우, 해당 사찰림의 나무종류와 토지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경제림과 숲가꾸기 사업, 문화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조림사업이나 숲치유, 캠핑장, 수목장을 비롯해 서양 수도원의 산림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한 6차 산업공간으로서의 사찰림 운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사찰림의 산림면적 및 위치 · 수종 확인 방안과 산림계획 수립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등 과학적 툴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거 사찰림의 도벌과 산불 등을 감시하던 '산감' 소임의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점이다. 과거 산감의 역할을 확대해 병충해 예방과 불법 포획 채취 방지, 산림휴양객 관리, 명상숲 운영 등 사찰림의 경제문화적 활용을 총괄하는 새로운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회부는 "향후 별도 세미나 등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물을 공론화하고 교육원 연수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시범연구가 마중물이 되어 현장에서 사찰림 활용에 필요한 자문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강화 보문사 백만원력불사 동참

1월 19일 5000만원 전달

강화 보문사(주지 선조)가 백만원력결집불사에 정성을 보탰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5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에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 때문에 참배객이 줄어 어려움이 많을 텐데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며 말했다. 송지희 기자


강화 보문사가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동참했다. 사진제공=아름다운동행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환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1월 ~ 4월** (※공고일 부터 3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